

《ごあいさつ》
《인 사 말》

伊藤 勲

이토 이사오

日本 財団法人 ユニバーサル財団 専務理事

일본 재단법인 유니벨재단 전무이사

ごあいさつ



伊藤 勲

日本 財団法人 ユニバーサル財団
専務理事

高齢者が住みなれた地域の中で暮らし続けるためには、その生活全般を支える専門職であるソーシャルワーカーの活躍が期待されております。

日本の良き伝統であった地域社会の結びつきが様変わりをしてしまった現在、独居であったり、多岐にわたる疾病や障害を抱えていることの多い高齢者が、相応しいサービスを必要な時に受けられるためには、高齢者を取り巻く諸問題に応じて援助を行うソーシャルワーカーの役割が重要となります。当事者自身の力で、安全で安定した尊厳ある日常生活を営むことができるよう援助・支援する活動は、今後ますます増大していく高齢者サービスの質を継続・向上していく要となりましょう。

本シンポジウムでは、日本と韓国だけでなく、アメリカ・イギリスにおける事例にも焦点を当て、地域福祉の視点から施設におけるソーシャルワーカーの役割や機能などの専門性について検証します。併せ、医療系専門職と介護系専門職の連携、さらに家族と地域のボランティアの協働など、高齢者を支援する仕組みづくりなどについての将来展望を行います。

昨年来、韓国のTVドラマ「冬のソナタ」が日本でも大ヒット。いわゆる「韓流」ブームが起こり、スターの来日を熱狂的なファンが空港で待ち受け、撮影地ツアーが企画されるなど、数年前には予測もしなかった「文化交流」現象が起こっています。韓国、中国、日本などそれぞれの国が文化を発信し、これが世界平和と人類の至福に

向ける融和・協調の中に、重要な役割を担う東アジア地域世界が実現する兆候であるとするならば、大変喜ばしいことです。

この度の「第2回“日韓こころの交流”シンポジウム」におきましても、各国の高齢者福祉のあり方に対する理解と関心が深まり、豊かな高齢社会に向ける取り組みの一助になれば幸いです。

인사말



이토 이사오
재단법인 유니벨재단
전무이사

고령자가 친근한 지역사회에서 계속 살아가기 위해서는 고령자의 생활 전체를 지원하는 전문적인 사회사업가의 활약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아름다운 전통이었던 지역사회의 유대가 사라져버린 지금 독거노인, 다양한 질병이나 장애를 가진 고령자가 적절한 서비스를 필요한 때에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고령자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해 원조하는 사회사업가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당사자 자신의 힘으로 안전하고 안정된, 그리고 존엄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원조·지원하는 활동은 앞으로 더욱 증대해갈 고령자 서비스의 질을 계속적으로 향상시키는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본 심포지움은 한국과 일본은 물론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토대로 지역사회복지의 관점에서 시설에서의 사회사업가의 역할과 기능 등의 전문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의료계 전문직과 간호전문직의 연계, 나아가서는 가족과 지역사회 내 자원봉사자의 협동 등 고령자를 위한 지원체계 만들기와 관련하여 장래의 전망을 제시하는 목적도 갖고 있습니다.

작년 말 한국의 TV드라마 ‘겨울연가’가 일본에서도 대히트였습니다. 소위 ‘한류’ 열풍 속에서 공항에서는 주연배우의 일본방문을 환영하는 열광적인 팬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촬영지관광이 기획되는 등 수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문화교류’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 등 각 나라간의 이와 같은 문화교류 현상이 세계평화와 인류의 복지를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할 동아시아지역세계의 융화와 협조의 실현을 의미하는 것이라

면 크게 기뻐할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금번의 「제2회 ‘한일 마음의 교류’ 심포지움」이 각국의 고령자복지의 상황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 풍요로운 고령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